

축제 즐기며 부처님 가르침 배워

제2회 교리경시대회...전국 8개 지역서 성황리 개최



전국 2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제2회 전국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가 지난 11일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은 서울 동국대 체육관에서 치러진 '도전! 범종을 울려라'를 주제로 치러진 초등부 결선 모습.

청소년 불자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신행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제2회 전국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가 지난 11일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관련기사 4면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최한 이번 경시대회에는 전국에서 초등학생 904명, 중학생 972명 등 총

운영위원장 성효스님, 공동 출제심사위원장 법인스님 등 주요 내빈들은 서울 동국대 교사장을 찾아 경시대회를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험 형식으로 치러진 중·고등부의 경우 단순히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닌 불교 기초교리와 신행에 대한 이해를 유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고등부 45문항, 중등부 40문

항에서 불교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체육관에서 진행된 초등부 교리경시대회 결선인 '도전! 범종을 울려라'에는 예선을 거친 341명이 어린이들이 참가해 그동안 공부한 교리 실력을 겨뤘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시험을 치른다는 기분보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끝에 청룡사 어린이범회 안현준(명신초3)군이 최후의 1인으로 선정돼 범종을 울리는 영예를 안았다. 참가 학생들도 최후의 1인이 된 안현준 군에게 박수를 보내며 축하했다.

초등부 1등을 차지한 안현준 군은 무대 앞에 설치된 범종을 3번 치고 난 뒤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

사단법인 동원 이사장 심산스님은 "어린이들이 교리경시대회를 통해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불교공부와 신행을 더욱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회 교리경시대회에는 2638명 지원자 가운데 1876명이 참가해 71.1%의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대회 시상식은 오는 10월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신행유도 중점 출제 1876명 실력 겨뤄

초등부 시험대신 골든벨 퀴즈대회 열어

'도전! 범종을 울려라'...축제의 장 연출

1876명이 참가해 교리 실력을 겨뤘다. 초등학생의 경우 3100여 명이 참가한 예선을 거쳐 341명이 결선에 참가했다.

특히 초등부의 경우 지난해 시험 형식에서 탈피해 '도전! 범종을 울려라'라는 제목으로 퀴즈대회 형식으로 치러져 축제의 장을 연출했으며, 참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어린이범회 지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경시대회에 앞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상임이사 성월스님, 대회 공동

항이 각각 출제됐으며, 특히 중등부 '전도선언'과 고등부 열반을 앞둔 부처님의 마지막 범문인 '자등명 범등명'을 제시한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묻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단답형 문제에서는 우리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무소유의 법정스님과 화쟁사상의 원효스님에 관한 문제도 출제돼 눈길을 끌었다.

공동 출제심사위원장 법인스님은 "일반적인 시험 문제가 아닌 시험

北 수재민 돕기 '온정의 손길'

조계종 5000만원 상당 긴급 구호물품 상차식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조계종이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조계종은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북녘 수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물품 상차식'을 갖고, 담요 5000장과 라면 3만개 등 5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북한에 전달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아름다운동행이 주관한 이날 상차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재무부장 성월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호법부장 상운스님, 민주본 사무처장 진효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원한 구호물품은 18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 남포항에 도착하며, 조선불교도연맹에 지정 기탁돼 신의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상차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남북관계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과 같은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과 교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후 조계종은 금강산 신계사 낙성 3주년인 10월13일까지 종단 소속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2차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5면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3일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교정관들과 재소자들을 격려했다. 김형주 기자

재소자 교화·사회복귀 노력 격려

총무원장 자승스님, 의정부교도소 방문...1000만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교정관들과 재소자들을 격려하며 온정을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3일 의정부교도소를 방문, "추석을 맞아 재소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서병식 의정부교도소장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의정부교도소는 불자 재소자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법회를 병행하고 있으며, 영어반 운영,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소자들의 사회 복귀, 적응을 돕고 있다.

의정부교도소 방문 직후 총무원장 스님은 소장실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 김병화 의정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동주 교정본부장 등과 회담을 나눴으며, 서병식 소장으로부터 교도소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바쁜 일정인데 번거롭게 해드린 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인사를 전했으며, 이에 대해 서병식 소장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교도소를 방문해주셔서 재소자들이 외롭지 않게 명절을 보낼 것 같다"고 화답했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총무원장 스님의 방문으로 교도소 내 불교 포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친 총무원장 스님은 교정관들과 함께 40여 분간 법당, 강당, 대운동장, 수용실 등 교도소 구내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법당을 찾은 총무원장 스님은 참배 후, '법무부 교정기관 무사고 기원'을 위한 난을 부처님 전에 올리기도 했다. 이

“
명절 앞두고 있어
직원과 재소자
모두 기쁘게 생각
”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세상을 살다보면 불가피하게 죄를 짓게 된다"면서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사회에 나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의 수행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관들에게 직접 염주를 채워주며 노고를 치하하고, 불자 재소자에게 소장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교도소를 방문해주셔서 재소자들이 외롭지 않게 명절을 보낼 것 같다"고 화답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의정부교도소 방문에 대해 교정관들과 포교사들은 스님의 방문으로 교도소 내 불교 포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진서 의정부교도소 불심화장은 "명절을 앞두고 총무원장 스님이 찾아 주셔서 직원과 재소자 모두가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불교의 넓고 큰마음으로 재소자들을 교정교화해서 불심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교도소 방문에는 사회부장 혜경스님, 호법부장 상운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법무부 검찰위원 정현스님, 사서국장 우봉스님, 용인 지장사 주지 의선스님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취임 후 매달 복지시설 및 소외이웃 등을 방문해 왔다.

의정부=임태규 기자

알립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9월20일(월)~24일(금) 추석연휴 관계로 본지 9월25일(토)·29일(수)자는 쉽니다. 우편물량 폭주로 인한 발송 차질 등을 감안하여 미리 알려드리며 아울러 독자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9월22일(2658호)자 다음(2659)호는 10월2일(토)자로 제작, 발송됩니다.

기업, 불교계 단체 보시 이어져

3면

H.E.까루린포체 관정법회

10월 9일 | 금강살타 관정
10월 10일 | 천수관음 관정

법당사 티벳문화원

대한불교조계종 법등사

Welcome H. E. Kalu Rinpoche

현대의 밀라레바 까루린포체 환생자 초청 관정법회 및 템플스테이

티베트불교 4대 종파의 하나인 까규파의 최고 수행지도자 까루린포체가 한국에 방한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법등사 티벳문화원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까루린포체는 방한기간동안 티베트불교 까규파의 수행법을 요망이 한국 불자들에게 전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수행에 비견되는 까규파의 수행을 기초부터 고급단계까지 직접 지도받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많은 불자님들과 수승한 법연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등사 티벳문화원
2010년 까루린포체(Kalu Rinpoche) 한국 전법 일정

구분	장소	일시	참가 조건	내용
티벳불교 수행체험 - 템플스테이	법등사 티벳 문화원 - 경기도 안성시 왕성면 노곡리 197-1 ☎ 031-674-3453	10월 1일 4시~ 10월 3일 오후 2시	· 자유 참가 · 템플스테이 - 6만원 · 100명, 신청자 순서 마감 · 준비물-침낭, 컵, 세면도구	· 환영 만찬회 · 팔관제제 사비관음 수행 · 수카시미 청수관정 법회 · 4본존 관정 법회 · 마하까라 뿌자 & 귀의식 & 관상수행법 전수
상박까규전승 - 기초 사가행	남양주 봉인사 - 남양주 진전동, 송능리 304번지 ☎ 031-574-5585	10월 5일 오후 2시~ 10월 7일 오후 6시	· 자유 참가 · 템플스테이 - 12만원 · 100명, 신청자 순서 마감 · 준비물-침낭, 컵, 세면도구	· 귀의 & 발심 · 금강살타 & 만달라 공양 · 구루 요가 등 기초 사가행 수행법 전수
팔관제제 녹네수행, 호미의식, 천도제	법등사 티벳 문화원	10월 8일 7시~ 10월10일 오후 6시	· 자유 참가 · 템플스테이 - 10만원 · 100명, 신청자 순서 마감 · 준비물-침낭, 컵, 세면도구	· 팔관제제 · 上師 청수기도, 극락세계 발원 · 금강살타 관정, 호미의식, 천도제 · 육비마하까라 공양, 대비관음 수행의식
4본존요가 전수	법등사 티벳 문화원	10월12일 오후 2시~ 10월14일 오후 6시	· 자유 참가 · 템플스테이 - 10만원 · 100명, 신청자 순서 마감 · 준비물- 침낭, 컵, 세면도구	· 4본존요가 수행법 구전 및 수행방법 전수
수행 불경사	☎ 031-256-4127	10월 1일 오전 11시		· 관세음보살 관정 법회
솔주 노고산 청룡사	☎ 031-855-5086	10월 8일 오전 11시	· 자유참가	· 관세음보살 관정 법회
율주 자제법원	☎ 052-264-1007	10월17일 오후 2시		· 귀의식, 천도제 및 관세음보살 관정 법회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까규파 최고 수행자의 환생
9월 29일 방한... 입문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지도

대한불교조계종 법등사 ☎ 031-674-3453
약사여래불관정 법등사 10월 15일 오전 11시 자유참가
다음카페 : 티벳문화원 हेungsas